‘SKT 해킹시점’ 석연찮은 변경…봐주기 논란

KISA, 사건발생 시간 수정 24시간 내 신고 무마 의혹 “실무자 소통 오류” 해명 현장조사 등 늑장대응 지적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을 넘겨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건 발생 시간을 석연찮게 수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7일 KISA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SKT 해킹 사건 경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한 시점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이고 사건 인지 시점은 이보다 약 한 시간 앞선 오후 3시 30분으로 기록됐다.

SK텔레콤은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내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체계를 통해 내부에 공유했다.

이렇듯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8일 오후 11시 20분인데, KISA는 이를 20일 오후 3시 30분이라고 40시간 지난 시점으로 기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과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KISA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킹 신고 관련 인터뷰 과정에서 사건 인지 시간에 대한 설명 후 SKT에서 인지 시간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SK텔레콤은 사건 인지 시점을 18일 밤으로 정상 신고했고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KISA 측은 “SK텔레콤의 해킹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보안 책임자가 신고하자고 결정한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보고 사건 접수 실무자가 시간을 정정한 것”이라며 “일종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18일 밤 해킹을 인지하고 상부 보고한 것이 명백한 데도 책임자가 신고를 결정한 시점이 사고 시점이라며 고쳐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SK텔레콤이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자 알아서 무마해주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KISA는 또 SK텔레콤 신고 뒤 관련 자료 보전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루가 지나서야 실시한 것으로 파악돼 늑장 대응 지적도 나오고 있다.

KISA가 SK텔레콤에 침해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한 시점은 21일 오후 2시 6분으로 신고 접수 21시간여가 지나고 나서였다.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KISA가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이보다 6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8시로 신고 접수 28시간 만이었다.

이마저도 실제 서버 해킹이 일어난 분당 센터가 아닌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였는데, KISA는 원격으로도 상황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KISA는 침해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입자 2300만명이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유심 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2300만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eSIM(이심·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포함한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킹 피해를 최초로 인지한 18일 24시 기준 가입자 중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T 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가 진행된다. 다만 일부 워치 및 키즈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9~27일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무상 교체 서비스를 소급 적용해, 고객이 이미 납부한 비용에 대해 별도로 환급하기로 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연합뉴스

채소·과일 등 농산물 가격 ‘안정세’

작황 양호·출하량 확대 등 영향…사과·배는 수급 불안

최근 들어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작황이 좋은데다 봄철 출하가 늘면서다. 다만 사과는 주산지인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여파로 당분간 공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채소류 중 배추(상품) 중도매가격은 25일 기준 10㎏에 1만4920원으로 한 달 만에 11.4%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보다 20.6% 저렴하지만, 평년보다 27.8% 높은 수준이다. 평년 가격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이달부터 봄 배추가 본격 출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근(무 세척·상품)은 20㎏에 5만3000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4.5%, 1년 전보다는 39.4% 내렸다. 평년보다는 4.8% 비쌌다.

대파(상품) 1㎏도 전월 대비 38.2% 저렴한 1240원에 거래됐다. 전년 대비 48.8%, 평년 대비로는 35.3% 떨어졌다. 겨울 대파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과일 가격 역시 안정세다.

참외(중도매가격)는 10㎏에 5만6660원으로 전월과 전년에 비해 각각 35.0%, 41.9% 떨어졌다.

수박은 한 개에 2만520원으로 전월보다 17.2% 내렸고, 전년 대비로는 34.4% 저렴해졌다.

반면 사과와 배 가격은 불안정한 모습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장성신협 첨단점에서 ESG 금융 실천을 위한 ‘지구동행적금’ 출시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하남·장성신협, ESG 실천 ‘지구동행적금’ 출시

광주전남본부 출범 지원…최대 연 6.5%·7만 포인트 제공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장성신협 첨단점에서 ESG 금융 실천을 위한 ‘지구동행적금’ 출시 기념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하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환수 장성신협 전무, 강동환 광주하남신협 상무, 정희정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등이 참석했다.

동반성장조합인 광주하남신협과 장성신협이 새로 출시한 ‘지구동행적금’은 주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금융상품과 연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자는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 작성, 신협 라이프온 가입, 그린체크카드 사용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6.5%의 높은 금리 혜택과 함께 최대 7만 포인트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창구전용 상품으로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성신협과 광주하남신협 각 300계좌 한도로 판매된다.

김영하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상품 출시는 ESG 경영 가치를 금융상품에 접목한 의미 있는 사례로 지구동행적금을 통해 지역 내 친환경 금융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광주신세계, 럭셔리 브랜드 ‘코치’ 팝업

태비백 등 올 봄 컬렉션 선봬

광주신세계가 본관 2층에 뉴욕 익스프레시브 럭셔리 브랜드 ‘코치(Coach)’ 팝업스토어를 오픈해 눈길을 끈다.

이번 팝업은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코치가 추구하는 진정성과 자기 표현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치는 1941년 뉴욕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패션 회사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튜어트 베버스(Stuart Vevers)’의 비전과 뉴욕의 포용적이고 용기 있는 정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것들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작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번 팝업에서는 아이코닉한 ‘태비백’부터 ‘체인 태비백’을 포함한 코치 2025 봄 컬렉션과 다양한 코치 아이템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코치의 본고장인 뉴욕 헤리티지를 그대로 담은 공간 연출을 통해 더욱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치는 최근 젠지 세대들이 사랑하는 ‘it’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면서 젠지 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마케팅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치의 브랜드 메시지인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용기(Courage To Be Real)’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또 현실적인 순간을 담아낸 캠페인 영상으로 젠지 세대의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모든 순간을 나답게’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2025 봄 캠페인 ‘On Your Own Time’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양경제청, 일본서 투자유치활동 전개

오사카·나고야 방문…투자설명회·업무협약 체결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코트라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간 일본 오사카와 나고야를 방문, 투자설명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고 27일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오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5오사카엑스포 현장을 찾아 일본 기업관 중 타마야마 디지털테크 전시관과 일본가스협회 전시관을 들러 일본의 IT산업과 에너지 산업 동향을 살폈다.

이어 나고야로 이동한 뒤 자동차산업분야 각종 정밀공구, 특수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수기에 세이키 회사를 방문해 광양만권의 투자 환경과 제조 여건을 소개하고 향후 투자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 공장 자동화 부문에 쓰이는 고정밀 부품을 제작하는 이토 정밀(Ito Precision)과 메탈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 엘레펀테크 두 기업을 방문하고 투자협의를 진행했다.

이밖에 잠재투자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광양만권의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중 3개사와 한일 기업 간 사업협력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

로또 1등 10명…당첨금 각 28억5000만원

Lotto 6/45

5 12 24 26 39 42

제116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2, 24, 26, 39,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8억527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2명으로 각 424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244명으로 14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48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6만8194명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비대면 자동차담보 생활자금 대출

최장 10년 분할상환…최대 1억 50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본인 단독 소유의 승용차나 승합차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Wa자동차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득 기반의 신용대출 한도가 부족한 고객을 위해 마련된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으로, 자동차 담보를 통해 추가 한도를 제공받을 수 있고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존 신용대출 한도에 본인 소유 차량의 시세를 기반으로 차량담보 한도를 더해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광주 와뱅크 및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금리비교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판매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CONOMY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중소기업지원협의회 ‘성료’ 동행축제·美관세 대응 공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나라키움광주통합청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30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관 간 주요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소통 및 교류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관의 지원방향을 논의하고 기관별 주요 지원계획 및 지원기관 간 협업 사항, 홍보 사항 등을 공유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 그간 지원협의회와 지역 협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규제개선과제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미 관세조치 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내 ‘애로신고센터’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고, 광주·전남 5월 동행 축제에 참여 독려와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시에서는 ‘(Pre) 명품강소기업 육성 및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기업의 적극 참여 안내를 요청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참석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촉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서창농협, 채소 육묘 무상 지원

서창농협은 최근 서창지점에서 조합원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채소 육묘 무상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창농협은 조합원들이 자가소비용 채소를 재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보다 우수한 품질의 모종을 제공하고자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조합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전체 조합원 1620명 가운데 약 90%가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는 일반고추 30주, 청양고추 5주, 오이고추 5주, 오이·가지·호박 각 3주씩 총 5종류의 모종을 준비해 모종을 신청한 조합원 1450여명에게 1인당 49주씩 무상으로 전달한다. 특히 고추 농사를 짓는 농가 중 추가로 모종이 필요한 조합원에게는 고품질의 모종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실질적인 영농비 절감 효과를 높였다.

김명열 서창농협 조합장은 “이번 채소 모종 지원을 통해 소규모 영농 조합원은 자가소비용 육묘 부담을 줄이고, 중·대규모 영농 조합원은 안전하고 질 좋은 모종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